



박노현의 표정들 지난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박노현 교육감이 사실상 승리했지만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후보 단일화 급물살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따라 박 교육감의 표정도 매일매일 변해왔다. 왼쪽부터 주민투표 하루 전, 주민투표 당일, 주민투표 무산 결정 후,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29일부터 31일까지 심각해져가는 박 교육감의 표정들. /연합뉴스

# 박측 “돈 요구받았지만 거부”

# 박측 “사퇴 대가로 7억 약속”

■ 박노현·박명기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나

## 단일화 협상·돈 전달 팽팽히 맞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박노현 교육감 측과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 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양측이 벌였던 막후 협상 과정은 물론 박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뒤늦게 돈을 전달한 이유 등에 대한 주장에 적잖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박 교수 측 캠프에 있었던 핵심인사인 A씨는 “박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선거에 출마하면) 낙선할 것이고, 진보진영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육감이 진보진영을 언급하며 사퇴를 회유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박 교육감 캠프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K씨는 “애초 박 교수 측은 여론조사로,

우리는 시민사회 원로들이 중재하는 형식으로 단일화하자고 했다가 결국 시민사회 원로가 중재하는 방식이 채택됐다”고 말했다.

양 캠프뿐 아니라 애초 다수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단일화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 돈을 요구하거나 제의한 정황 등과 관련된 주장도 크게 엇갈린다.

박 교육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선거비용으로 쓴 7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로 박 교육감이 보전해주기로 처음부터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 역시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2억원에 그 중 일부”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후보자 매수’라고 확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자 박 교육감 측 캠프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7억원이 아니라) 1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10억원에다 유세차량·플래카드 비용까지 더해 엄청난 액수를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후보단일화 논의에 참여한 이해학 박사는 지난 30일 박 교육감이 박 교수로부터 7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교수 측은 박 교육감이 약속한 돈을 제때 안 줬 작년 11월 폭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지만 박 교육감 측의 만류로 접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장 자리에 대한 주장도 충돌한다.

박 교수 측은 박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당시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장을 책임지고 싶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교육청 인사 때마다 10개 이상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박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 논의 당시 박 교수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장을 책임지고 싶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수 측이 교육청 인사 때마다 10개 이상의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검찰 “2억 출처 살살이 밝히겠다”

# 곽교육감 소환 임박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1일 박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를 비롯해 돈거래 및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주변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함에 따라 수사의 최종 타깃인 박 교육감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수사는 문제의 2억원이 전달된 경로를 역추적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

2억원의 최종 종착지인 박명기 서울교수 교수가 지난 26일 가장 먼저 체포돼 조사받은 뒤 구속됐고 이어 양측으로 돈이 전달된 중간 경로에 위치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체포됐다가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풀려났다.

이어 박 교수에게 건너간 돈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박 교육감의 부인과 주변인물들이 조사를 받는 수순을 밟은 셈이다. 따라서 다음에 당연히 2억원의 출발점에 있는 박 교육감 차례일 수밖에 없다.

박 교육감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라든지 어느 정도 다 조사하고 나서 교육감도 부를 필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르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굳이 날자를 못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에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사팀은 박 교육감 소환에 대비해 이미 충분히 ‘예열’ 해둔 상태다.

소환에 응하면 지난해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과정과 단일화의 대가로 급물살(職)을 주기로 했는지, 2억원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등을 캐물기로 하고 핵심 포인트마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뒀다. 수사 관계자는 “인적, 물적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박 교육감이 전달한 돈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하는 만큼 현재 수사력은 2억원을 조성한 경위를 밝히는 데 모아지고 있다.

만일 박 교육감이 전달한 돈에 개인자금으로 볼 수 없는 돈이 섞여 있다면 향후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억원의 출처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금 성격의 돈이 섞여들어갔거나 제3자 또는 외부단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 단체들도 상반

박노현 교육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 단체들이 31일 오전 출근시간 종료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반나절 휴가를 내고 오후 2시에 출근했다. /연합뉴스

# “박태규 도움 요청 거래 제의 거절”

## 박지원 “한나라 대권주자와 가까운 사이”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부산저축은행에서 구명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태규씨가 해외 도피 중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거래를 제의했지만 일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저축은행 수사 시작 후” 출국했다 박씨가 한 달 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내년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박씨가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이를 6~7개나 했다고 말했다”며 “또한, 박씨는 자신은 돈도 조금 받고 벌 죄를 짓지 않았다. 건강이 좋아지면 귀국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박씨가 한나라당 대권주자와도 굉장한 가까운 사이이며 앞으로 하나하나 풀릴 것으로 본다”며 “내가 BBK 사건처럼 이 문제에 달려들면 (여권에서) 내가 그를 유혹했다고 할 것으로 보여 제의를 거절하고 귀국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러면서 “단순히 그가 여러 실세들과 가까우면 죄가 안 되겠지만, 과연 그가 여러 핵심이나 부산저축은행과 관계가 있는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삼성 공 장학재단과 포스텍이 1천여원을 출자했는지와 부산저축은행이 왜 포항의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줬는지”라며 “여기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는 게 사실이며 이것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태규 영장실질심사 포기

## 중수부 저축銀 수사 은진수 이어 두번째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1일 박씨가 피의자 신문 포기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심문을 열 뒤, 박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기록 등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다고 해서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며 “다만

피의자 측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한 것은 역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심문 없이 수사가족만 검토한 뒤 은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원을 해주세요”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 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선정 2011년 대한민국 명품상품 3년 연속 수상

명품서비스 온라인 증권거래 전문

1200.6 \* 2009.7 \* 2010.7 \* 2011.7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부 제11-04969호(2011.08.30~2011.11.29)

(상장지수펀드)

# ETF로 한판붙자!

## 2011 뱅키스쥬 ETF실전투자대회

뱅크스의 스마트한 투자제안 - ETF!

- 저렴한 거래비용 : 주식과 달리 매도시 발생하는 거래세(0.3%)가 없어 비용이 저렴!
- 효과적인 분산투자 : 과학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ETF의 탁월한 분산투자 효과!
- 유연한 시장대응 : 상승장엔 레버리지, 하락장엔 인버스 ETF로 시장대응에 효과적!

eFriend Smart+ 로 거래시,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무료!

(주식, ETF, 선물, 옵션 거래시 / 뱅키스계좌에 한함 / 외국인만 제외)

영화배우 이시영

### 총 상금 1억 4천만원!

1라운드는 **Kodex**, 2라운드는 **KINDEX**

▶ 신청기간: 8.22(월)~10.21(금) 9주간 ▶ 참가대상: 뱅키스계좌 보유 개인고객

구분	삼성 KODEX 부문	한국 KINDEX 부문	주간 수익률 리그
대회기간	8.29(월)~9.30(금) 5주간	10.4(화)~11.4(금) 5주간	
리그 구분	3000리크	3000리크	3000리크
참가조건(매주 예탁금 기준)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등 상금	현금 2천만원	현금 2천만원	현금 5백만원

※ 2위~5위 시상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주간수익률리그'는 주간단위 사은품 증정수상 불가(단, 1회에 한하여 아이패드2/주유권 증정수상 가능)  
 ※ 3000/300 리크별 시상금 증정수상 불가(단, 'KODEX'부문 & 'KINDEX'부문은 증정수상 가능, 리그시상금 & 주간수익률리그 사은품 증정수상 가능)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단, ETF중점이벤트 관련 제세공과금은 당사부담)

ETF 증정 이벤트 ▶ 대회참가 신규고객 선택수 1,000원 ETF 1주 증정 ▶ ETF거래고객 중, 주간단위 5명(총 30명) ETF 10주 증정

## BankIS® 광주 ETF 투자설명회

▶ 일시: 9.3(토) 14:00 ~ 16:30  
 ▶ 장소: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참가신청: 1544 - 5000

은행에서 증권계좌 만들 땐!  
 착한수수료 0.015% (온라인 주식에 한함)  
 선물 0.0019%, 옵션 0.09%

국민의 대표 온라인 투자 파트너 —  
**BankIS®**  
 고객센터 1544-5000 www.bankis.co.kr

※ 당사는 본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예금저축보통예에 따라 보호받지 않습니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외환지수는 환율 변동 시 자기손실이 변동되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투자증권은 예금저축보통예에 따라 보호받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론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종료 후, 뱅키스 수수료는 온라인 주식거래 시 0.015%이며 기타 수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